Cello Concerto No. 1

- □□

정보

개요
곡명: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1, Op. 193
작곡가: Alfred Schnittke (1934–1998)
작곡 시기: 1985–1986년
헌정 ·초연 독주자: Natalia Gutman
초연: 1986년 5월 7일, Munich. Natalia Gutman, Münchner Philharmoniker, Eri Klas 지휘
출판: Hans Sikorski
악장: 4악장

IMSLP: 첼로 협주곡 작품 목록의 Schnittke 항목

Wikipedia: Alfred Schnittke 작품 목록

작품의 성격

Alfred Schnittke의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1은 독주 첼로와 대규모 관현악을 위한 4 악장 협주곡이다 . Pesante. Moderato, Largo, Allegro vivace, Largo 가 이어지며, 독주 첼로의 질문과 독백, 행진 ·춤의 거친 중간 결론, 마지막 코랄풍 선율이 한 호흡으로 연결된다. 처음에는 3악장으로
구상되었지만 작곡 중 새로운 느린 악장이 뒤에서 나타나면서 현재의 4악장 구조가 되었고, 제 3악장은 임시 피날레, 제 4악장은 전체를 다시 해석하는 결론으로 기능한다.

위촉과 작곡 과정

Schnittke는 1985년 봄 Munich의 Gasteig 문화센터 개관을 위한 위촉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다. Viola Concerto를 완성한 뒤 약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 곧 심각한 뇌졸중을 겪어 약 20일 동안 의식이 흐린
상태에 놓였다. 작곡가의 노트와 초연자 Natalia Gutman의 회고는 회복 뒤 작업을 재개했다는 공통 사실을 전한다. Gutman은 의사들이 작곡을 쉬라고 했지만 Schnittke가 비밀리에 쓰기 시작했다고 회상하며, 작곡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했다고 이해했다.

Schnittke는 총보를 다섯 달 만에 빠르게 완성했다고 기록했다. 원래 계획했던 3악장의 결말이 거의 끝날 무렵 , 별도로 예정하지 않았던 긴 노래가 나타나 제 4악장이 되었다. 이 경험 때문에 작곡가는 제 4악장을 절정이자 결론으로 보았고, 제 3악장을 그 뒤에 새로 놓인 결말에 맞추어 마무리했다 . 이 성립 과정은 작품을 뇌졸중의 직접적인 음악적 서사로 확정하기보다 , 악장 배열과 마지막 선율의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작곡가 ·초연자의
자료로 읽을 수 있다.

초연과 판본

IRCAM, BIS 음반 책자, Dezède 공연 데이터베이스는 1986년 5월 7일 Munich에서 Natalia Gutman, Münchner Philharmoniker, Eri Klas가 초연했다고 기록한다. 로컬 정식 문서에 있던 London·Gennady Rozhdestvensky 조합은 후대 녹음이나 공연 메타데이터가 섞인 표기로 보이며, 초연 기록과 분리된다. 현재 확인되는 악장 표기는 Pesante. Moderato, Largo, Allegro vivace, Largo 다. 일부 이전 목록의 마지막 Lento 는 판본 ·전사상의 표기 차이로 남아 있으므로, 아카이브 기반 신판과 출판사 자료가 일치하는 Largo 를 주값으로 삼는다.

2025년 공개된 Ivashkin–Schnittke Archive 기반의 Collected Works 신판은 자필 자료와 이전 판본을
대조해 총보와 독주 파트를 편집한다. 이 신판은 기존 Sikorski 판본과 함께 텍스트 비평 주석과 자료 계보를 제공하는 최신 연주 자료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독주 첼로 파트와 총보의 관계가 복잡하며, 판본에 따라 악장 표기와 개정 사항이 달라지므로 사용 총보의 편집 정보가 별도로 제시된다.

소요 시간

IRCAM은 약 40분, BIS-507 녹음은 39분 54초, Lond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은 약 38분으로 제시한다. Naxos의 Maria Kliegel·Saarbrücken Radio Symphony Orchestra 녹음은 36분 43초이며, 악장별로 13분 43초, 9분 32초, 3분 38초, 9분 50초다. 템포와 반복, 판본 편집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전곡의 대표 범위는 약 38–40분으로 잡을 수 있다.

편성

독주 첼로와 함께 플루트 3(피콜로 겸주), 오보에 3(제 3주자는 잉글리시 호른 겸주), 클라리넷 3(제 3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주), 바순 3(제 3주자는 콘트라바순 겸주), 호른 4, 트럼펫 4, 트롬본 4, 튜바를 사용한다. 타악기는 여섯 명이 맡으며 팀파니, 트라이앵글 , 플렉사톤, 봉고 2, 작은북, 큰북, 심벌즈 3, 탐탐, 튜블러 벨, 비브라폰, 마림바가 포함된다.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와 하프시코드 , 현악 5부 (대략 12·12·11·10·8)도 편성에 들어간다.

첼레스타와 하프시코드는 판본에 따라 겸주 가능성이 표시되며, 타악기와 건반 악기의 세부 표기는 총보 목록마다 묶음이 다를 수 있다. 이 대규모 편성은 독주자를 계속 덮는 배경이라기보다 , 첼로가 하나의 개인적 목소리로 등장했다가 관현악의 압력과 코랄에 흡수되는 공간을 만든다. BIS 책자의 Svetlana Savenko 해설은 이 관계를 독주자와 “환경 ”의 대립으로 읽으며, 첼로의 독백 ·관현악의 응답 ·합주의 붕괴가 갈등을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악장별 구조

I. Pesante. Moderato

약 13–14분의 제 1악장은 첼로가 낮고 끈질긴 질문 동기를 내놓는 데서 시작한다. 관현악은 그 동기를 둔탁한 메아리처럼 늘리고, 독주자가 질문을 진술로 바꾸려 할 때 합주의 압력이 목소리를 덮는다. 중간의 Moderato

에서는 첼로가 관현악과 주제를 주고받고 평화로운 대위를 시도하지만 , 안정된 화성에 머무르지 못한다. 후반 카덴차에서 선율이 음형으로 풀리고 리듬이 과열된 뒤 시작의 동기가 큰 합주로 돌아오며, 마지막에는
관현악의 붕괴가 동기와 악장 자체를 끊는다. Savenko의 분석은 이 과정을 진실과 안정성을 찾는 독주자의 고통스러운 탐색으로 해석한다.

II. Largo

약 9–10분의 제 2악장은 관현악의 코랄 주제가 먼저 공간을 만들고, 독주 첼로가 떨리고 고통스러운 선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 독주 모놀로그는 점차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며 표현의 날카로움을 키우고, 관현악은 코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첼로의 불안정한 호흡을 받아들인다 . Savenko는 이 악장을 앞선 충돌에서 벗어나
성찰과 반성의 출구를 찾는 두 번째 시도로 설명한다. 코랄과 독백의 관계가 제 4악장에서 다시 확장될 재료를 준비한다.

III. Allegro vivace

약 3–4분의 짧은 제 3악장은 처음 들으면 피날레처럼 보인다. 강하게 악센트된 행진 주제가 춤 동기로 바뀌고, 빠른 에너지가 그로테스크한 모호함을 만든다. 그러나 제 2악장의 코랄이 절정에 침입해 화성을 무너뜨리고
독주부를 산산이 흩뜨린다. 이 붕괴 때문에 제 3악장은 완결된 승리보다, 관현악의 과장된 행진이 스스로
소진되는 중간 결론으로 남는다.

IV. Largo

약 10–12분의 제 4악장에서 첼로는 다시 조심스럽게 선율을 찾는다. Savenko는 마지막 독주 주제가 옛
러시아 교회 선율인 즈나멘니 (Znamenny) 성가를 연상한다고 해설하며, 독주자가 고립된 개인의 목소리에서 합창의 선창자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다른 악기들이 차례로 노래에 합류하고 코랄이 넓어지면서 , 제 3악장에서 무너졌던 재료가 공동의 울림으로 재조직된다 . 이 악장은 제 3악장 뒤에 덧붙은 시간적 결말이면서 , 앞선 세 악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듣게 하는 구조적 중심이다.

독주 첼로와 관현악의 관계

네 악장에서 첼로의 역할은 같은 협주곡 독주자의 영웅적 전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제 1악장에서는 질문과 카덴차가 합주의 압력에 부딪히고, 제 2악장에서는 코랄에 합류하려는 독백이 펼쳐진다. 제 3악장의 행진은 독주자를 일시적으로 빠른 움직임의 중심에 놓지만, 곧 화성과 음형이 함께 붕괴한다. 제 4악장에서는 첼로가 합창을 이끄는 선창으로 변해, 협주곡의 결론을 독주자의 승리보다 공동의 노래에 가깝게 만든다. 이 해석은 BIS 책자에서 Savenko가 제시한 관점이며, Schnittke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판본과 녹음의 연주 맥락

Boosey & Hawkes/Sikorski의 출판사 자료는 대규모 편성과 작곡가의 네 악장 노트를 제공한다. BIS-507의 Torleif Thedéen·Leif Segerstam·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녹음은 39분 54초의 전체
시간과 Savenko의 작품 분석을 함께 남긴다. Naxos의 Maria Kliegel·Gerhard Markson 녹음은 36분 43 초로 더 짧은 사례를 제공하며, 두 음반의 차이는 템포와 편집 선택이 실제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Natalia Gutman의 인터뷰와 초연 기록은 이 협주곡이 그녀의 음색과 기교를 전제로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Gutman과 Eri Klas의 Munich 초연, 이후 Rozhdestvensky·Kurt Masur가 참여한 녹음은 서로 다른 시기의 수용 자료다. 초연자 회고와 음반 해설을 악보의 유일한 해석 지침으로 바꾸지 않고, 독주 첼로와 관현악의 균형 ·프레이징 ·마지막 코랄의 성격을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Sikorski 작품 카탈로그
IRCAM 작품 데이터
BIS-507 음반 책자와 Savenko 해설
Natalia Gutman 인터뷰
Naxos 녹음 카탈로그
Schnittke 작품 목록
Ivashkin–Schnittke Archive 기반 신판 Dezède 초연 공연 데이터
Lond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